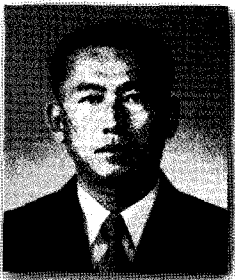


조경수목 전정기술



하태주 | 이학박사
천안연암대학

1. 전정의 목적

나무 전체의 모양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 다듬는 것으로 그 나무가 지니고 있는 생태와 형태에 모습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자연적인 수형이 되도록 불필요한 줄기나 가지를 정리하여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정의 좁은 의미로는 수목에 아름다움과 개화결실에 방해되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수목이 지니고 있는 생리 및 생태적인 특성을 살려 여러 기능에 알맞게 조절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기술적인 조경수의 관리, 유실수의 관리 기타 실용적

인 목적을 위한 수형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정이란 수목고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는 기술로 한번 잘못 잘라낸 가지는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정에 앞서 충분한 이론을 습득한 후 기술을 익히고 이론을 정리하여 실제 작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정은 이 수목이 향후 어떤 수형으로 변화 될지 미래를 생각하여 수목의 골격(整枝)을 만들고 목적하는 수형에 맞게 전정해 나가야 한다.

2. 전정 이론

전정은 여러 목적에 맞게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전정이론을 충실히 알고 진행해야 한다. 신초의 생장과 분지 각도에 따른 생장정도(리콤프의 법칙), 앞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과 뿌리에서 흡수하는 질소의비(C/N율)에 의한 전정 방법,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중량비(T/R율)에 따른 전정 방법, 정단부 및 끝가지의 세력(정부(頂部)우세의 법칙)에 따른 전정 방법 등 각기 다른 이론을 수목에 적용시키며 전정을 해야 하나 실제 전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실종된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기술된 이론을 하나하나를 모두 숙지하고 그 이론에 따른 전정 방법을 선택하여 전정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전정 시기

전정 시기는 크게 생육기 전정과 휴면기 전정으로 크게 나눈다. 일반적으로 생육기 전정은 이른 봄 3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전정이다.

봄 전정은 주로 상록 활엽수의 속음전정 시기이며 봄 일찍 꽃피는 수종들은 꽃이 지고난 후 전정을 통해 다음해 꽃눈이 충실히 맺힐 수 있도록 전정 하는 시기이다.

여름전정은 수목생장 최성기에 수관을 다듬고 지엽을 조절하는 것으로 채광과 통풍이 원활하도록 실시하는

전정이다. 특히 이시기는 강한 바람과 긴 우기로 인해 수목의 생장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당한 솜음전정을 통해 통풍을 양호하게 하고 채광이 원활하도록 하여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정하여야 한다.

생육기 전정은 가급적 강 전정은 피하고 약 전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시기에 강 전정을 하게 되면 음엽이 갑자기 강한 광선에 노출되어 잎이 타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이시기는 단풍나무의 전정 시기이다. 이른 봄이나 가을 낙엽이 진 후 전정을 하게 되면 상처부위로 수액이 흘러 가지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풍나무는 반드시 개엽 후(생장기 동안) 전정하는 것이 좋다.

낙엽 활엽수의 경우 낙엽이 진 후 수목전체의 수형을 보며 전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정이나 상처부위 유합 조직 측면에서 본다면 생육기 전정(특히 봄전정)이 좋다. 가을 이후부터는 소나무 강 전정시기이므로 수형을 바로잡는 전정을 실시한다.

4. 소나무 전정

소나무 전정은 5~6월 적심전정과 휴면기 강 전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적심전정 요령은 작년 5~6월호에 게재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휴면기 전정은 광선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강 전정을 실시해도 강한 광선에 의한 음엽의 피소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음엽은 양엽에 비해 큐티클(cuticle)층이 얇아 강 전정으로 인해 강한 광선을 직접 받게 되면 잎의 표면이 타 갈색으로 변하고 세포가 파괴 되어버린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휴면기 전정을 실시하게 된다. 휴면기 전정이라 하더라도 흑한기에 너무 강한 전정을 하게 되면 큐티클(cuticle)층이 얇은 음엽은 동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흑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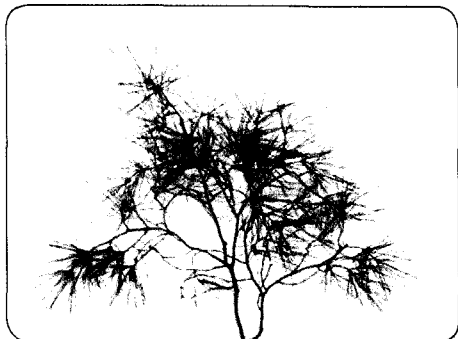
근래에 소나무를 가이즈카 향나무 키우듯 가지 전체를 둥글게 재배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소나무의 고유 수형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연스럽지 못한 수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재배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소나무를 재배하다 보면 잔가지 밀생도가 높은 것과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는 가지 등 다양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 정도에 따라 전정 이론과 전정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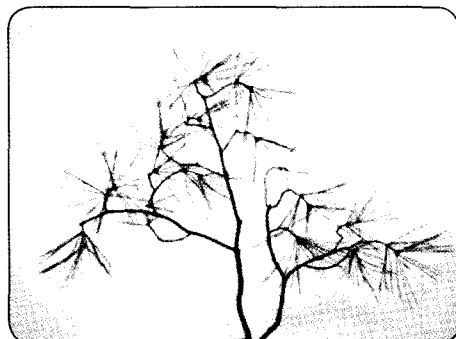
잔가지가 밀생된 경우



잔가지의 밀생이 높음



가지 전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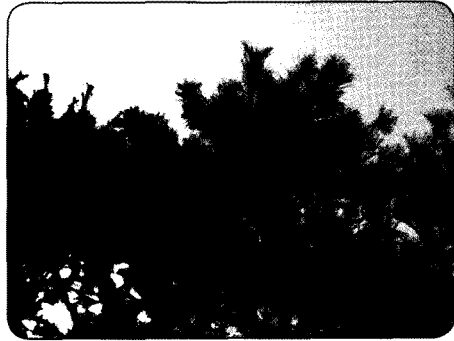
전정 후

그림 1. 잔가지가 밀생된 소나무 전정 방법

그림 1과 같이 잔가지의 밀생도가 높은 소나무는 뿌리에서 흡수되는 질소의 함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상부의 많은 가지로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가지마다 얻을 수 있는 질소의 함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잔가지를 많이 솎아주는 전정 방법이 좋다. 대부분 굵은 가지 몇 개를 전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법은 옳지 못한 전정 방법이다. 건강하고 세력이 좋은 가지를 선별하여 남기고 허약한 가지를 솎음 전정하여 채광과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생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수목의 세력을 좋게 할 수 있는 전정방법이다. 이러한 수목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전정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점점 세력이 쇠약하게 되고 고사되는 가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도장지가 많이 발생 된 경우



전정 전



전정 후



전정 후

그림 2 도장지가 많이 발생한 경우

그림 2와 같이 수세가 너무 좋아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형을 흐트리는 도장지를 제거하고 안쪽에 있는 중간정도 세력의 가지를 남기고 수관선을 맞추어 전정 하면 되는데 가급적 많은 가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 수세가 지나치게 좋을 경우 도장지를 절반정도 남겨 잎 속의 눈을 발아시켜 가지의 수를 많게 하는 것이 좋다.

전정은 무엇보다도 수목 고유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미래수형을 생각하며 전정하여야 한다. 